교회의 지역사회복지 참여고찰
– 장유대성교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

이경선 (장유대성복지재단 상임이사)

I. 들어가는 말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의 의뢰로 2013년에 글로벌리서치에서 행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다. 한국교회는 5점 만점에 2.62점을 받았다. 이를 두고 글로벌리서치의 지용근 대표는 최소한 3.75점을 받아야 기업에서 제품을 출시하는 점을 고려해 보면, '한국교회'는 출시 불가한 제품이라고 봐야 할 만큼 위급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특히 무종교인들의 경우 한국교회에 대해 8.4%만 신뢰하고, 56%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1] 답답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가 놓여 있는 준엄한 현실임은 부정할 수 없는 것 같다.

이런 달갑지 않은 현실에 대해 모두 자성하고 또 고민하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이제 고민의 자리를 털어내고, 사랑과 존경을 받는 교회가 되는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때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주변에는 지역주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교회들이 아직 많이 있다. 악조건 속에서도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교회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교회들이 특히 그렇다. 더군다나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예수의 가르침을 성실히 실천해 온 결과 점점 더 질적, 양적 측면에서 교회가 성장한 사례들도 많아지고 있다. 교회가 지역주민들을 지속적으로 섬기고 베풀자, 지역주민들이 교회로부터 받은 사랑을 여러 형태로 되갚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런 선순환의 한 현상에는 불신자들의 복음 수용도 포함된다.

발제자가 속한 <장유대성교회>(담임: 한재엽 목사; 경남 김해시 소재) 역시 지역복지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 결과 지역주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아 지속적인 성장 가운데 있는 교회이다. 13년 전에 230여 명의 성도로 시작된 교회가 2014년 현재 장년 출석교인 3200여명(아동 및 청소년 1200명 포함)의 교회로 성장했다. 경남지역은 복음화율이 7~8%에 묶여 있을 만큼 선교가 척박한 지역임을 고려해 보면 경이로운 성장이다. 이러한 성장의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교회"라는 목회방침이 13년 동안 일관되었고, 이에 부응하여 지역주민을 섬기려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한 예로 2011년에 <장유대성교회>의 지역사회 복지 프로그램에 대해 지역주민 252명, 교회성도 530명, 자원봉사자 12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 지역주민의 72.4%가 장유대성교회의 복지사업을 알고 있었으며, 76.4%가 만약에 교회에 나가게 된다면 장유대성교회를 나갈 생각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자원봉사자들 중 99.2%는 복지 프로그램이 실제 전도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며, 자신의 봉사로 인해 지역주민이 실제 등록까지 한 경우를 보았다는 응답이 24%였다.[2] 이는 지역 주민 대다수가 교회 프로그램에 호감과 신뢰를 지니고 있었고 지역을 섬기는 교회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본 글에서는 <장유대성교회>의 사례를 통해 교회의 지역사회복지 참여 프로그램들을 먼저 개괄해 본 후, 한국교회의 지역사회복지 참여에 관한 제언과 교회의 지역사회복지 참여의 긍정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1)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196081
2) 장유대성교회 지역사회봉사원, 『품(Poom)』 제3호 (2011),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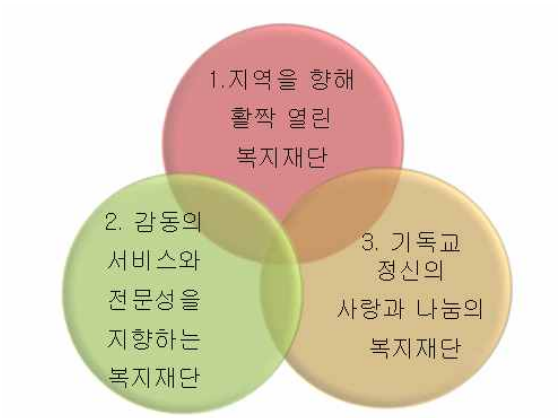
Ⅱ. <장유대성복지재단>의 사역 소개

장유대성교회(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교회의 지원만으로 13년간 지역사회를 위한 복지 프로그램을 꾸준히 해 오던 중 2013년에 <사회복지법인 장유대성복지재단>을 설립하게 되었다. <장유대성복지재단>은 현재 7개의 아동복지 사업, 3개의 노인복지사업, 7개의 지역복지사업 등 총 17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업을 진행하는 8명의 직원들 외에도 6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있다. 먼저 본 복지재단의 사업현황과 사업들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1. 복지설립목적

장유대성교회가 설립한 장유대성복지재단은 지역민을 향해 활짝 열린 사회복지 법인입니다. 마을, 지역공동체의 가난과 소외, 아픔과 고통을 두 팔 벌려 크게 보듬고 함께 울며 웃겠습니다. 지속적인 섬김과 봉사, 나눔으로 전문적, 체계적 감동의 서비스를 펼쳐가겠습니다. 이웃 모두가 자유, 평등, 평화, 행복을 누릴 때까지 복지재단을 통한 사업을 행진해 갈 것입니다.

2. 비전



3. 주요사업

1) 아동가족복지사업

행복한세상나들이:아기학교/임산부학교, 아미고스:홈런 키즈&맘,
어깨동무학교, 꿈담은장학사업, 결식학생급식비지원

2) 노인복지사업

청춘대학, 사랑,해 빨간밥차, 사랑의 도시락배달

3) 지역복지사업

두란노작은도서관, 평생교육프로그램, 에코한마음 장유대성점, 북카페, 필그림, 키즈랜드,
소식지'품'

4) 일반사업: 홍보,지역사회자원개발사업,지역사회조직사업, 기타사업

5) 아동복지시설 운영

-꿈샘지역아동센터

4.사업내용

1) 아동가족복지사업

(1) 행복한 세상나들이: 아기학교

■소 개: 유아기 첫 사회활동을 엄마와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활동 으로 구성하여 엄마와 유아의 친밀감을 형성하고 사회성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

■이용대상: 생후 24개월 ~ 48개월의 유아와 어머니(보호자)

■이용시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12시 / 년 2학기제로 4개학급으로 운영(3월/9월)

■프로그램: 동화구연 및 전후활동, 유아음악 · 체조 놀이, 견학, 야외학습, 온가족 놀이마당, 인형극 관람, 부모교육 등

(2) 행복한 세상나들이: 임산부학교

■소 개: 태아기부터 밝고 건전한 태내환경을 조성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과 함께 임신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

■이용대상: 예비신부 및 임신여성

■이용시간: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12시 (년 2학기제-3월/9월)

■프로그램: 임산부 심리, 임산부를 위한 이론강의, 특별활동, 체험학습, 스트레칭 운동, 음식태교, 산책태교 등

(3) 아미고스: 홈런 키즈 & 맘

■소 개: 아미고스(amigos,친구들)는 다문화가정 아동과 결혼이민자 여성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다문화가정의 한국사회에 안정적인 정착과 가정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이용대상 : 다문화가정 아동과 결혼이주여성

■이용시간 : 매주 화요일 오전10시~13시 (년 2학기제-3월/9월)

■프로그램 : 한글교실, 요리교실, 문화탐방, 특강 및 특별활동, 가족통합프로그램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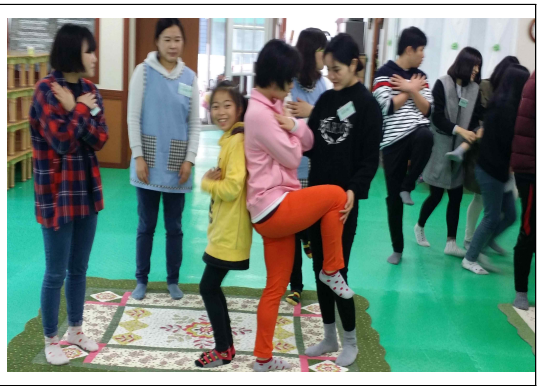
(4) 어깨동무학교

■소 개: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하는 통합프로그램으로 즐거운 미술, 음악, 신체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건강 한 자아상을 갖도록 돕는 프로그램

■이용대상 : 6세~13세 장애아동과 자원봉사 활동학생

■이용시간 : 매주 토요일 오전10시~13시

■프로그램 : 미술치료, 음악치료, 운동치료, 미술놀이, 특강 및 특별활동, 야외체험학습 등



(5) 결식학생 급식비 지원사업

■소 개: 지역의 결손가정과 저소득 가정 등 열악한 가정환경으로 학교급식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하여 결식예방, 건강유지, 심리적 위축감을 해소하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돕는 공익사업

■선정대상 : 기초생활수급가정, 차상위, 한부모, 다문화가정자녀로
장유1,2,3동 내 중,고등학교 재학생

■수행시기 : 매년 1월 ~ 12월

■선정방법 : 장유지역의 중학교,고등학교에 공문발송
→ 학교장 추천자 중 내부심사 후 선정.

■결식학생급식비 지원내역(2004~2014학년도 9월 현재)

- 2004년 ~ 2014년(11년): 3억7천여만원(1,156명) 지원

■재원 - 사랑나눔 자선바자회 수익금, 교회 헌금

(6) 꿈 담은 장학사업

■소 개: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여 안정되게 학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학금 지급, 자신감 있게 꿈과 비전을 이루도록 돕는 공익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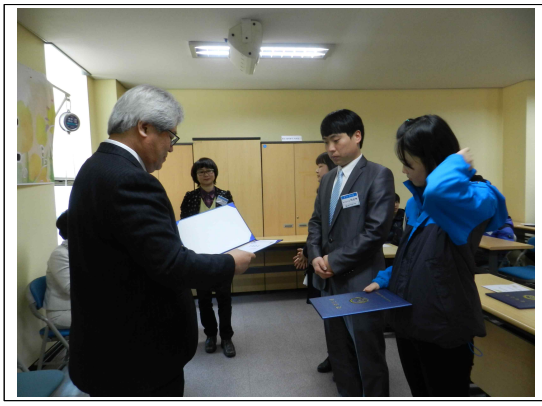
■선정대상 : 지역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수행시기 : 매년 1월 ~ 2월

■선정방법 : 지역의 초등,중등,고등학교, 대학교에 공문
→ 학교장, 총장의 추천자 중 내부심사 후 선정

■ 장학금 지원내역 (2005~2014)

- 2005년 ~ 2013년(8년): 1억4천4백만원 지원(대학생 135명 지원)
- 2014년: 초,중,고등학생, 대학생까지 확대하여 31명/ 11,700,000원 지원



2) 노인복지사업

(1) 청춘대학

■소 개: 지역의 건강한 노인문화와 복지향상을 위해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설, 건강 하고 보람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

■이용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정원 300명)

■이용시간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 13시 30분

■프로그램 : 특별활동(한글교실, 노래교실, 서예, 택견, 장구, 건강체조,성인댄스, 손발마사지 등), 봄,가을 소풍, 견학, 특강, 건강검진, 이미용서비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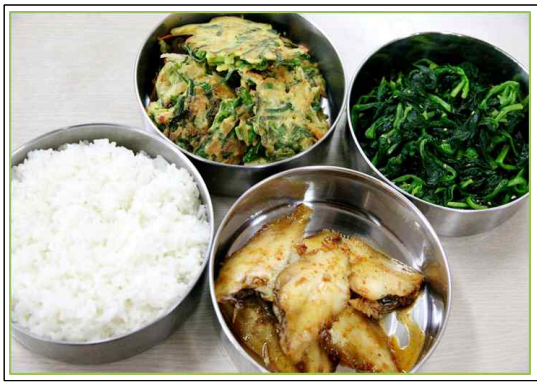
(2) 사랑의 도시락 배달

■소 개: 사랑의 도시락 배달은 우리이웃중 거동이 불편하거나 홀로 생활 하시는 어르신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해 드리는 음식/사랑나눔 사업

■이용대상 : 독거노인 및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

■배달시간 : 매주 토요일 오전 12시 ~ 14시

■봉사활동 : 도시락 배달, 말벗, 병원동행, 이.미용봉사, 집안청소, 도배 및 장판교체 등




(3) 사랑,해 빨간밥차

■소 개: 사랑,해 빨간밥차는 BC카드와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기탁하고 장유대성교회가 후원하여 운영하는 이동식 노인무료급식차량으로 지역내 찾아가는 서비스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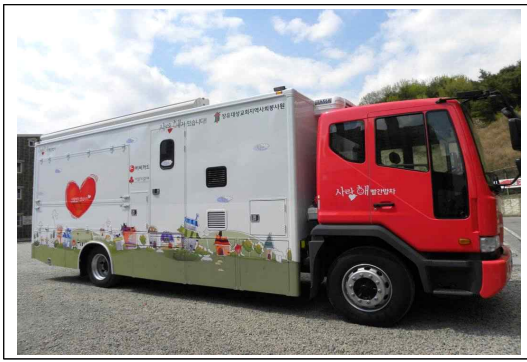
■이용대상 : 만 60세 이상 어르신, 노숙인, 장애우 등

■이용시간 : 매주 화,목,금 오전 11시30분 ~ 12시 30분

■이용장소 : 매주(화) 김해시 장유면 율하수남공원
매주(목) 김해시 진영읍 서어지공원
매주(금) 김해시 장유면 장유중앙광장공원

■현재이용인원 : 율하수남공원 : 매주 약 120~150명/ 진영서어지공원 : 매주 약 150명/
장유중앙광장공원 : 매주 250~300명

* 방학(하절기 식중독 예방 및 동절기 골절 등의 사고예방 취지)
: 하절기(7월 중순~8월 말)/ 동절기(12월 중순~2월 중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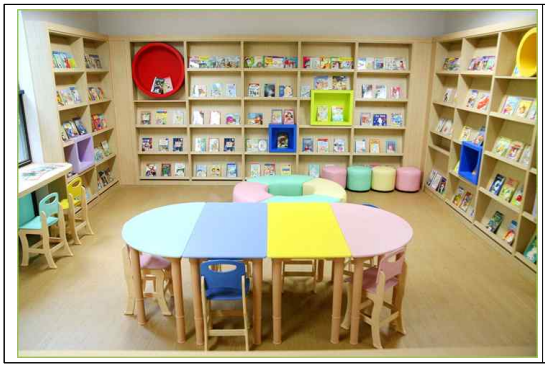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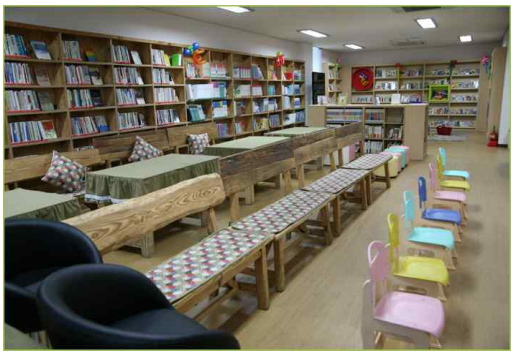

3) 지역복지사업

(1) 두란노작은도서관

■소개: 김해시에 등록(2012-04호)된 작은도서관으로 다양한 도서가 구비되어 있으며, 일반도서 2,500여권, 아동청소년도서 4,000 권, 영어도서 1,500여권의 장서구비

■이용대상 : 지역주민 누구나

■운영시간 : 월~금 오전 10시 ~ 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역의 문화, 교육의 열린공간으로 지역주민의 자기계발과 지역내 다채로운 교육문화 향상을 위해 80여개의 강좌가 연2회(봄/가을학기) 운영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을 위한 여름,겨울방학 특강이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용대상 : 지역주민 누구나

-운영기간 : 봄학기(3~6월) 가을학기(9~12월) / 여름방학특강(8월), 겨울방학특강(1월)


(2) 에코한마음 장유대성점

■소 개: 에코한마음은 한마음 공동체와 함께 우리의 땅과 농부를 위하고 지역사회의 환경과 건강, 그리고 생명을 사랑하는 운동입니다.

■이용대상 :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시간 : 월~금 오전 10시 ~ 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판매물품 : 유기농물품판매/아나바다(품목에 따라 1~2천원에 판매)

＊수익금 전액은 꿈담은 장학사업의 장학금으로 전액 사용됩니다.


(3) 북카페 필그림

■소 개: 차와 음악, 행복한 웃음이 있는 교제의 공간으로 마음을 살찌우는 서적을 저렴하게 구입(10% 할인)할 수 있는 북카페 운영

■이용대상 :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시간 : 월~금 오전 10시 ~ 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이용료 : 음료 및 다과를 드실 경우만 실비(1,000~3,000원)

* 수익금 전액은 꿈 담은 장학사업의 장학금으로 사용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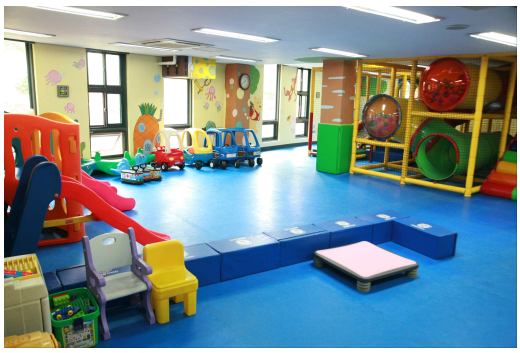

(4) 키즈랜드

■소 개: 육아문제로 자기계발이나 여가생활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여성들을 위해 은혜관 1층에 약 50평의 실내놀이시설을 설치해 문화교실이나 여가활동 중 자녀들을 믿고 맡길수 있도록 운영 신청을 통해 지역내 가정어린이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목,금)

■이용대상 : 3세 이상 ~ 6세 이하 유아만 이용 가능

■이용시간 : 월~금 오전 10시 ~ 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이용료 : 전액무료




(5) 밀알회

■소 개: 지역의 어려운 이웃이나 기관을 대상으로 후원금이나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재원은 교회 밀알회 헌금으로 운영된다.

-생활비지원- 극빈자, 수급권자, 저소득층 가정에 매월 지원

-기관후원- 사회복지기관에 정기적으로 매월 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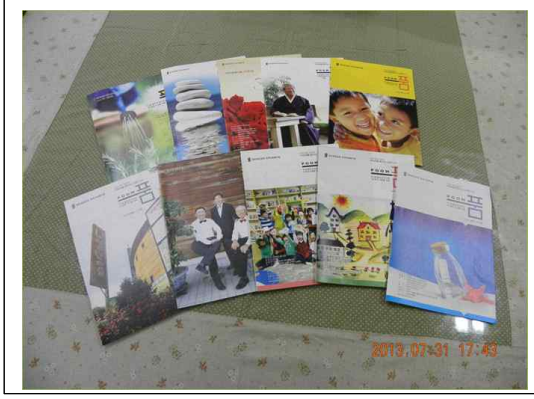
-후원금- 기관 요청시 기관후원

-긴급구호- 긴급재해발생 요청시 개인 및 기관지원

(6) 소식지 '품'

■소 개: 소식지 '품'은 장유대성복지재단의 가치와 비전을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며, 재단과 산하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회복지활동 소개하여 지역민들과 소통하는 소식지입니다.

■발　간 : 연 4회 계간지로 발간(1월, 4월, 7월, 10월 둘째주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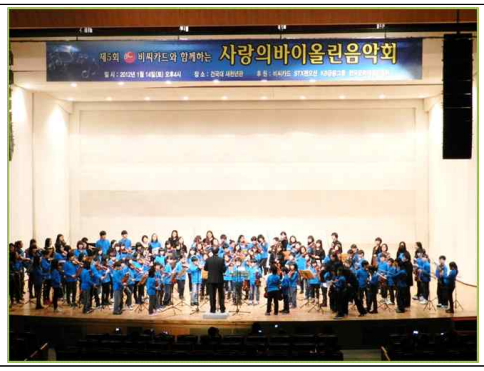

4)복지재단 산하시설

(1) 꿈샘지역아동센터

■소 개: 맞벌이부부의 증가와 이혼, 실직등으로 인한 가족해체 문제가 급증하는 가운데 방과 혼자 지내는 아이들을 교육, 보호하기 위해 '꿈샘지역아동센터'를 운영

■이용대상: 초등학생(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자녀, 다문화가정 자녀)

■수업시간: 매주 월 ~ 금요일 오후 2시 ~ 7시(석식제공)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중식제공)
■프로그램: 독서논술,구연동화,국어,영어,수학,과학,사회,미술,음악, 전래동요,특별활동,견학 등..
■교 육 비: 무료



Ⅲ. <장유대성교회>의 사례에 비춘 교회의 효과적인 지역복지 참여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급속도로 추락하는 현실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앞에서 교회가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으로 지역주민을 꾸준히 섬기는 것이 중요한 한 대안이 됨을 장유대성교회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성공사례가 보편적으로 모든 교회에 적용되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지역복지 참여가 절대적 명제라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념하면 시행착오를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의 지역복지참여에 대한 인식전환과 의지가 중요하다. 교회의 대사회적 봉사와 섬김의 당위성에는 대부분 동의한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장치나 노력은 다소 미흡하다. 곧 목회자를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이 이를 실천해 낼 구체적 방안 등에 대한 교육과 훈련은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예산배정, 프로그램 계획과 실행, 평가, 환류(feedback) 등의 기본체계가 확정되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다. 또한 조급한 선교효과에 대한 조급증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장유대성교회는 이런 점에서 다소 차별성이 있다. 담임목사(한재엽)의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강한 의지가 당회원들을 이해를 도왔다. 그래서 장유대성교회 당회는 교회가 지역사회 안에서 지역사회와 상호협력, 보완, 협력을 구축할 때 교회는 존립 가능하며 교회의 존재 자체가 유의미 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또한 교회가 지역사회를 향해 사회복지의 적극적, 실천적 참여를 한다고 해서 우월의식이나 시혜적 태도를 갖는 것도 지양(止揚)해야 함을 알고 있으며 이런 전제 위에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둘째, 교회가 지역사회복지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과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교회는 다양한 자원의 집합체이다. 교회는 탁월한 영성, 지성, 인성의 인적자원을 소유하고 있으며 재정자원, 그리고 시설자원도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교회는 일반사회복지기관보다 좀 더 사랑의 정신으로 실천할 수 있는 잠재력과 유연성이 우위에 있다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교회는 일반사회복지기관과 상호 협력하는 관계를 긴밀히 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전문성 때문이다. 또한 지역주민들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자원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교회가 지역

사회를 효과적으로 섬기려면 전문 인력과 조직력을 갖추고, 이를 근거로 과학적, 체계적 조사, 기획, 진행, 평가, 조정까지 할 수 있어야 한다.

장유대성교회 역시 이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현재의 <장유대성복지재단>으로 발전해 왔다. 지역복지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지역사회봉사원>이라는 지역사회복지 관련 독립기관으로 두고 사업들을 진행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전문 사회복지사의 필요성을 절감해야 했다. 곧 바로 인력을 확보한 후에야 여러 면에서 전문성이 발휘되었고 큰 효과를 보았다.

장유대성교회는 2009년에 지역아동센터를 개소한 후 2013년에 <사회복지법인 장유대성복지재단>을 설립하게 되었다. 매 해 새로운 사업들이 계획되고 진행되었으며 현재는 7개의 아동복지 사업, 3개의 노인복지사업, 7개의 지역복지사업이 전문화 되어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17개의 사업이 진행되다보니 전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어려움들은 자원봉사자들이 기쁨으로 감당해 주고 있다. 주(週) 중에 복지재단에서 수고하는 자원봉사자는 600여명에 이른다. 또한 직접 봉사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대부분이 후원금과 목적 헌금을 통해 이 사역을 간접적으로 돕고 있다. 법인설립이 된 후 장유대성교회는 사회복지기관으로서 좀 더 효율적인 사업들을 시행할 수 있었다. 전문 인력을 확보하였고, 공신력과 전문성을 구축하였으며, 안정적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다. 예산도 예전과는 달리 교회로부터 독립 운영하게 되었고, 당회는 법인이사회와 사회복지 전문가 조직에게 사업을 위임하였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지역사회복지는 지역사회 사회복지기관과 시설, 행정기관, 민간단체, 지역교회 등과 협력하여야 좀 더 효과적이다. 이 기관들과의 네트워크, 사례관리를 통해 대상자의 실제 필요를 공급할 수 있으며, 복지수혜의 중복이나 누락을 예방하는 전달체계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마을 주민이 프로그램을 기획, 진행, 평가하는 방식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해 교회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교회와 지역사회가 서로 소통하며 동반자 관계를 유지할 때 더불어 행복해지는 지역,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Ⅳ. 결론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행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에 대한 여론조사를 만약에 장유지역에서 행한다면 그 결과는 어땠을까?' 여전히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그토록 낮을까? 어쩌면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장유대성교회를 처음 찾아오시는 분들이 택시를 타고 장유대성교회를 가자고 하면, 기사 분들이 그 교회는 "좋은 일 많이 하는 교회", "바자회해서 결식학생들 후원하고, 어르신들 위해서 더우나 추우나 공원에서 따뜻한 밥 지어 드리는 교회"라고 일성으로 외치신다고 한다.

장유대성교회는 지역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 중 하나라고 믿었다. 그렇게 배웠고, 우리는 힘을 다해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 중이다. 후원금을 내는 이들, 몸으로 섬기는 이들 모두가 이 시대의 정직한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들이야말로 추락한 한국교회를 바로 세울 하나님 나라의 역군들이라 생각되며, 이 땅의 많은 교회들도 이런 의미 있는 자리에 동참할 것을 기대해 본다.

토론문

교회의 지역사회복지 참여고찰
- 장유대성교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

박은희 (만덕종합사회복지관 관장)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약 1: 27)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음이여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시 41:13)

교회가 사회복지를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가 있다. 거꾸로 교회가 하나님이 요청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하고 싶을 때가 있다.

한국교회가 출시 불가한 제품이라는 내용을 보면서 씁쓸하지만 큰 소리로 웃음이 나왔다. 불교, 카톨릭이 사회복지를 통해 놀랍게 부흥한 사실이 최근 10여년 동안 있어 왔지만 우리 교회들은 여전히 우리끼리 이불 뒤집어 쓴 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들었다.

토론자도 한 때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 지금도 그 생각에 일부는 가지고 있다.

덕천교회에서 재원을 출연하여 설립된 '로뎀복지재단'에서 사회복지관을 위탁받고자 기관장을 채용한다는 정보를 듣고 이력서를 내면서 말은 함부로 하면 안되는 것이구나 싶었다. 왜냐하면 인적·물적 자원이 풍부한 종교단체에서 제도권, 즉,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한마디 한 기억이 났기 때문이다. 종교단체와 그에 속한 종교인들은 정부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각 종교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거기에는 비전문가인 종교인들이 정부지원금으로 지은 건물에서, 정부지원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법인전입금 일부를 준다는 명목 아래 사회복지를 좌지우지한다는 배타성에 근거한 생각이 있었음을 고백한다.

장유대성복지재단은 이러한 점에서 지역에서 매우 성공적인 하나님의 일을 수행한 곳이라고 생각된다. 우리 법인도 보조금없는 사업을 오랫동안 수행하였기에 지역을 섬기는 교회로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장유대성교회의 활동들을 보면 교회가 지역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그 지역에 필요한 일들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하는 섬김의 일들을 수행해오는 과정이 쉽지 않았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없이 예산을 배정하고 인력을 배치하면서 이 정도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일하는 자들의 기쁨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으리라 생각된다. 집사들에게 일을 맡겼듯이 전문가에게 일을 맡긴 결단과 교인들의 헌신적인 참여가 기쁨없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덕천교회와 장유대성교회처럼 많은 교회들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그런데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그저 교회 자신만을 위하는 곳으로 오해받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신뢰가 낮아지고 있을 때 다른 종교는 지역사회에서 신뢰를 쌓아가고 있었고 그 시기가 공교롭게도 지역사회복지 참여와 비례한다는 것은 우리 교회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사회복지적 신학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사회복지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장유대성교회의 사회복지실천 현장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다.